



역사장랑에서 문화관광의 랜드마크로

장춘시 신민대가 역사문화거리 구간 새롭게 탄생



▲ 7월 5일, 장춘시 신민대가가 개조후의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1933년에 건설된 신민대가는 길림성 최초의 '중국역사문화명거리'이다. 이번 개조는 기존의 건축 풍모를 보호하는 토대에서 현대 기능을 융합하여 애국교양, 문화체험과 레저기능이 일체화된 종합적인 거리로 건설했다.

5일, 장춘역사문화박물관이 정식으로 현판식을 가졌다. 이는 신민대가 역사문화거리 구간이 정식으로 개장했음을 표징한다. 북악소리 속에 불입식 공연과 꽃차 순회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신민대가는 축제 무대로 변했다.

지난 2월, 신민대가 역사문화거리 구간 보호 격상 공사가 시작됐다. 근 1,445미터의 백년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 관광객들과 대면하게 되었다.

신민대가 역사문화거리 구간 정식 개장에 앞서 신민대가 건설자와 많은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신민대가 북쪽 예술장지구역에 있는 '1445' 조각상 현판식이 있었다. 조각상은 수자 '1445'를 주제로 '14'는 '항일전쟁 14년'을 의미

하고 '45'는 '1945년에 중국인민들이 항일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다'를 의미하는바 역사에 대한 명기와 평화에 대한 소중함을 표현한다.

장춘일보사 옛터를 개조한 장춘역사문화박물관은 신민대가 역사문화거리 구간의 핵심공사이다. 박물관은 '한 거리, 한 도시, 사람들'을 주제로 '신민 강신', '장춘 이야기', '장춘 시간', '도시의 빛 - 선생님 북쪽으로', '장춘 무형문화유산' 등 5대 전람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역사문화 구간의 건축 생태에서 도시 발전에 이르기까지, 동북 건설을 지원하는 엘리트 집단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인 토배기 전승자에 이르기까지 집체적으로 도시의 기억 도감을 구축했다. 개장후 장춘역사문화박물관은 신민대가 역사문화거리 구간의 주입구, 관광객 집산지, 장춘 역사문화 이야기 전술자로 되었다.

로해에 따르면 신민대가 역사문화거리 구간 연선의 역사건축, 정원, 공원, 광장 등 다양한 장소를 포함한 15곳의 핫플레이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위만주국 국무원 옛터(길림대학 기초의학원), 위만주국 사범부 옛터(길림대학 배준의학부), 위만주국 종합법아 옛터(중국인민해방군 연군보장부대 제964병원 남호원구) 등 3개의 전시구에 각각 '위만주국 국무원 옛터 특별전', '길림대학 배준의학 기념전', '위만주국 종합법아 옛터 특별전'이 설치된 가운데 개막 당일 이미 군중들에게 개방되었다.

장춘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신민대가 역사문화거리 구간은 문화창의 서점, 주제 커피숍 등

특색 점포를 유지한 동시에 전통 브랜드의 가입을 이끌어 '전통 브랜드 + 신에 브랜드'의 조합 모식을 형성하였으며 '문화, 관광, 상업' 융합발전의 거리 포인트를 한층 더 강화하여 역사거리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리용을 실현했다.

금후 장춘시는 신민대가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역사 탐방 관광', '자연 야외 취미 관광', '산업 주적 관광' 등 특색 제품들을 포함한 여러 주제 로선을 출시하게 되며 '장춘 이야기' 연구학습 수업, AR 실경 안내 등 혁신 봉사과 '춘성만유(春城漫遊)' 관광패스 전용 로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정성껏 준비한 2층 관광패스 로선은 장춘시 수십곳의 역사건축물과 핵심관광지를 연결하여 장춘시의 역사문화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지게 된다.

/ 길림일보

국무원, <장애인 취업촉진 3년 행동방안(2025-2027)> 발부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장애인 취업촉진 3년 행동방안(2025-2027)>을 발부해 장애인 공공봉사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장애인 취업 지원을 가일층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비교적 충분하고 질 높은 취업을 실현함으로써 현대화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촉진키로 했다.

행동방안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정부의 지원, 부분간 협력, 시장 추진, 사회 참여의 발전사상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과 창업 경로를 더욱 넓히고 취업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장애인 취업의 질을 안정적으로 제고하고 장애인의 취업 권익을 더 잘 보장하며 장애인 취업과 창업 봉사의 질적 제고와 능률 증대를 추진하고 전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취업과 창업을 관심하고 지원하는 량호한 사회 분위기와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

행동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규정된 비례에 따른 장애인 취업 배치'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기관과 사업단위에서 앞장서 장애인 취업 행동과 기업의 장애인 취업 지원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비교적 충분한 취업(较为充分就业)'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의 자주적 창업과 유연한 취업을 촉진하는 행

동과 장애인의 보조적 취업 촉진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중점군체'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대학생 취업지원행동, 농촌 장애인 취업지원행동, 시각장애인 취업지원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취업 봉사 개선과 구조적 모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취업 봉사 향상 행동과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권익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로동취업 권익 보장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행동방안은 자금, 정보 등 보장 조건을 명확히 했다. 여러 지역에서는 규정에 따라 각종 취업 지원과 보조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장애인 취업 보조장려 실시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전국 일체화 정부 봉사 플랫폼과 각급 정부봉사기구에 의탁하여 장애인 취업 수치의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을 실현해야 한다. 통일된 장애인 취업 봉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행동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 촉진을 민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반 행동의 책임분과와 직책 분공을 더욱 명확히 하고 관련 취업 촉진 사업 조를 기제를 강화하여 제반 조치의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각급 장애인연합회와 장애인봉사기구는 적극적으로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취업 항목을 더 많이 모색해 장애인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촉진해야 한다.

/ 신화사

길림성, 장애인 '두가지 보조금' 기준 상향 조정

최근 길림성민정청, 길림성재정청, 길림성장애인연합회는 <전성 곤난장애인 생활보조금 및 중증장애인 간호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전성의 곤난장애인 생활보조금을 매월 1인당 99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인 간호보조금을 매월 93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곤난장애인의 생활보조금 기준은 매월 1인당 85원에서 99원으로 조정되고 중증장애인 간호보조금 기준은 매월 85원에서 93원으로 조정되었다. 각지에서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현지 보조금 기준을 적절하게 높일 수 있다. 조정된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인민넷 - 조문판

습근평 총서기 연변 시찰 10주년 집중취재보도(1) - 연길편

간곡한 당부 명기하며 새 연변 향해 힘차게 나아가다

【편집자의 말】

올해는 습근평 총서기가 연변을 시찰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14.5'계획을 전면적으로 마무리하는 해이다. 10년간의 분발분투 과정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위와 정부는 전 주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대로 분발전진의 생동한 실천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연변고품질 발전의 뚜렷한 향상을 추동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연변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강대한 힘을 집결시켰다.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는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연변주 직속 매체와 각 현(시) 융합매체중심, 연변 주재 중앙과 성 직속 매체들을 조직하여 연변의 8개 현, 시와 주 직속 관련 부문에 대해 집중조사연구 취재 활동을 펼쳐게 된다. 본지는 이번 기부터 해당 기사를 룽속 지면에 게재한다.

- 편집부

오동약업, 혁신 주도로 동북아 시장 선도

길림오동제약그룹연길주식유한회사 생산부총경리 우해도는 "당시 총서기는 '과학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해 대중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오동약업은 생물의약 연구개발과 생산체계 혁신에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10년간 오동약업은 '안전, 신뢰, 안심할 수 있는 약'이라는 초심과 사명을 지켜오면서 투자 생산액 77억 6,000만원과 세금 납부 10억 8,000만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국내 생물의약산업을 선도해왔다. 회사는 생물의약 기술 개발에 집중해 30여종의 약품 연구를 완료하고 14종의 신규 품목을 추가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국가 1류 신약인 '주사용 염산보안마이신'과 국가 부작 의약품 '주사용 염산평양마이신'은 전국 60% 립상 수요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암 치료 등 중요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10억원을 투자해 200여대의 고성능 자동화 장비를 구축한 검측센터를 신설하고



제품의 합격률을 99.98%로 끌어올렸다.

단영사회구역, 석류씨처럼 굳게 뭉친 삶의 터전 구축

단영사회구역 당위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왕숙청은 "사회구역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첫번째 플랫폼임이 동시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제1진지"라고 말한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단영사회구역에는 한족, 조선족, 회족, 만족,

장족 등 10개 민족의 7,897명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소수민족 비율이 62%를 차지한다.

단영사회구역 당군중봉사중심에 들어서면 '중화민족 한가족',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유의 정신적 삶의 터전을 구축하자' 등 표어와 사진들이 눈에 안겨와 사회구역의 질은 민족단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단영사회구역당위는 또 <중화민족은 한가족>가요를 창작해 주민들 마음속의 '주선물'로 되게 했다.

▶ 3면으로

중국제 1 자동차 상반기 판매량 157 만대

중국제 1 자동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제 1 자동차의 완성차 판매량은 157만대를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6.1% 성장했다. 생산된 완성차는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한 155만 5,000대이다. 그중 자체브랜드 판매량은 44만 9,800대를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했다. 자주적 신에너지 판매량은 14만 5,000대를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95.5% 성장, 증가폭이 현저하다. 합작브랜드는 112만 1,000대를 판매하여 합작브랜드 진영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중국제 1 자동차 산하의 '홍기', '해방' 등 브랜드 가치는 모두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홍기' 브랜드는 제품 진영을 풍부히 하여 '홍기' 천공, '홍기' H5 PHEV 등 차종을 출시했다. '해방' 브랜드는 국내 단말시장을 선도하고 한국, 기네, 세네갈, 필리핀 등 해외시장을 돌파했다. '펜티엄(奔腾)' 브랜드는 기술혁신, 제품 진영 보완과 혁신적인 선전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제 1 자동차 - 폭스바겐은 브랜드 혁신과 전기 스마트화 전환을 다그쳤다. 중국제 1 자동차 '아우디'의 Q6L e-tron 패밀리 매장 첫진 100개가 개업하고 중국제 1 자동차 '도요다'는 새로운 스마트 전기자동차 b25를 출시하여 신에너지 전환과 승급을 추진했다.

/ 길림일보